

01. ④ 02. ① 03. ③ 04. ④ 05. ③ 06. ⑤ 07. ② 08. ⑤ 09. ④ 10. ①  
11. ② 12. ⑤ 13. ⑤ 14. ④ 15. ③ 16. ③ 17. ② 18. ① 19. ④ 20. ⑤

### 1. 순자가 강조한 삶의 태도 파악

**정답 해설** : 가상 편지를 쓴 고대 동양 사상가는 순자이다. 순자는 인간의 본성은 악하지만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에 의한 교도(敎導)가 있으면 누구나 본성을 변화시켜 성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무위자연(無爲自然)을 추구한 도가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② 성선설을 주장하는 유교 사상가들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③ 공(空) 사상을 제시한 불교에서 강조하는 삶의 태도이다.
- ⑤ 순자는 모든 욕구의 배제가 아니라 자연적 욕구의 적절한 충족을 주장하였다.

### 2.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사상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소크라테스이고, 을은 소피스트인 고르기아스이다. 소크라테스는 덕은 지식이며 행복이라는 지덕복합일설을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보편타당한 지식이 존재하며, 그러한 지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무지를 자각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소크라테스에 따르면 올바른 지식과 덕을 갖춘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진다.
- ③, ④ 고르기아스는 객관적 진리와 궁극적 선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회의주의적 진리관과 윤리관을 제시하였다.
- ⑤ 소크라테스는 선악 판단과 관련해서 감각적 경험이 아니라 이성적 사유를 중시하였다.

### 3. 정약용의 인성론과 덕론 이해

**정답 해설** : 제시문은 모두 정약용의 주장이다. 그에 따르면 성(性)이란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마음의 기호(嗜好)이며, 이 기호에는 인간만이 지니고 있는 영지(靈知)의 기호와 인간과 동물 모두가 지니고 있는 형구(形軀)의 기호가 있다(ㄱ). 또한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자주지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자유롭게 선이나 악을 선택해서 행할 수 있다(ㄴ). **정답 ③**

#### [오답피하기]

- ㄱ. 정약용에 따르면 인간의 본성은 마음의 기호이다. 본성이 곧 하늘의 이치라는 것은 성리학자들의 입장이다.
- ㄴ. 정약용에 따르면 사덕(四德)은 인간의 본성에 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단(四端)의 실천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다.

#### 4.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플라톤이고, 을은 아리스토텔레스이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인간은 선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선을 행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지의 나약함을 극복하기 위해 유덕한 행위를 습관화해야 한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플라톤은 영혼의 세 부분인 이성, 기개, 욕구의 탁월한 상태를 지혜, 용기, 절제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절제는 행복의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덕이다.
- ② 플라톤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이다.
- ③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중용은 감정과 행위에 있어서 최적의 상태이다.
- 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덕을 깨달았더라도 의지의 나약함으로 인해 실천하지 못할 수도 있다.

#### 5. 불교의 팔정도의 의미 파악

**정답 해설** : (가)를 주장한 사상가는 석가모니이다. (나)의 가로 열쇠 (A)는 ‘팔관회(八關會)’이고 (B)는 ‘공정(公正)’이며 (C)는 ‘도덕경(道德經)’이다. 그러므로 세로 낱말 (A)는 ‘팔정도(八正道)’이다. 팔정도란 중도(中道)의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열반에 이르기 위해 실천해야 할 여덟 가지 바른 수행 방법을 가리킨다. **정답 ③**

**[오답피하기]**

- ① 윤회와 관련된 설명이다.
- ② 사성제(四聖諦)에 대한 설명이다.
- ④ 연기설 또는 인연 사상과 관련된 설명이다.
- ⑤ 열반에 대한 설명이다.

#### 6.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아퀴나스이고, 을은 아우구스티누스이다. 아퀴나스에 따르면 영원법은 자연법의 근거이고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연법은 실정법의 근거이다(ㄱ). 그리고 인간이 영원한 행복을 얻으려면 반드시 믿음·소망·사랑이라는 종교적 덕을 갖추어야 한다(ㄴ). 한편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는 모두 완전한 행복에 이르려면 반드시 신의 은총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ㄷ).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ㄷ.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악은 신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유 의지를 남용함으로써 생겨난 것이다.

#### 7. 이황과 이이의 사단 칠정론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이황이고, 을은 이이다.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이(理)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氣)가 발한 것이다. 따라서 사단의 하나인 측은지심(惻隱之心)은 기가

아니라 이가 발한 것이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③ 이이에 따르면 이는 발하는 것이 아니라 발하는 까닭이다.
- ④ 이이는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이가 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다시 말해 사단과 칠정의 연원이 같다고 보았다.
- ⑤ 이황과 이이는 모두 경(敬)의 태도를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다.

8. 노자와 장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노자이고, 을은 장자이다. 노자와 장자는 모두 자연의 흐름에 순응하는 삶을 추구하였으며(ㄷ), 인위적인 문명을 거부하고 소박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ㄹ).

정답 ⑤

[오답피하기]

- ㄱ. 노자와 장자는 모두 분별적 지혜에서 벗어날 것을 강조하였다.
- ㄴ. 노자와 장자는 모두 인의와 같은 인위적인 덕을 버릴 것을 강조하였다.

9. 주희와 왕수인의 격물치지론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주희이고, 을은 왕수인이다. 주희는 격물치지(格物致知)를 사물에 나아가 이치를 탐구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는데 비해, 왕수인은 양지(良知)를 적극적으로 발휘하여 마음이 있는 곳의 일을 바로잡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왕수인에 따르면 양지는 경전 공부를 통해 획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타고난 참된 앎이다.

정답 ④

[오답피하기]

- ① 주희는 경건한 태도로 사물의 이치를 탐구할 것을 강조하였다.
- ② 주희는 도덕적 수양을 통해 탁하고 치우친 기질을 바로잡을 것을 강조하였다.
- ③ 왕수인은 마음이 곧 하늘의 이치이므로[心即理(심즉리)], 마음 밖에는 이치가 없고[心外無理(심외무리)] 마음 밖에는 사물도 없다[心外無物(심외무물)]고 주장하였다.
- ⑤ 주희와 왕수인은 모두 천리를 보존하고 이기적 욕망을 제거할 것[存天理去人欲(존천리거인욕)]을 강조하였다.

10. 매킨타이어와 나딩스 사상의 공통점 파악

정답 해설 : 갑은 현대 덕 윤리 사상가인 매킨타이어이고, 을은 배려 윤리 사상가인 나딩스이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이 공동체와 분리된 삶을 살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정답 ①

[오답피하기]

- ① 매킨타이어와 나딩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③ 매킨타이어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④ 나딩스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⑤ 매킨타이어와 나딩스 모두가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 11. 정치적 의무의 도덕적 근거에 관한 흄의 입장 파악

**정답 해설** : 제시문은 흄의 주장이다. 흄은 정부에 복종해야 하는 근거는 국가로부터 얻는 혜택 또는 이익이라고 보았으며, 안전과 보호를 국가로부터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제시하였다. **정답 ②**

[오답피하기]

- ① 흄은 안전한 삶을 위해 정치 공동체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 ③ 묵시적 동의도 정치적 의무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본 로크의 입장이다.
- ④ 흄에 따르면 국가가 평화와 질서 유지라는 이익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민은 정치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 ⑤ 흄의 입장이 아니며, 로크의 입장도 아니다.

#### 12. 원효와 지눌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지눌이고, 을은 원효이다. 선종과 교종의 조화를 추구한 지눌은 돈오점수(頓悟漸修)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점수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정혜쌍수(定慧雙修)를 제시하였다. 또한 그는 화두(話頭)를 들고 수행하는 간화선(看話禪)이 필요하다고 보았다(ㄱ). 화쟁(和諍) 사상을 제시한 원효는 일반 백성들도 염불 수행을 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ㄴ). 한편 원효와 지눌은 모두 갈등하고 대립하는 불교종파들의 조화를 추구하였다(ㄷ). **정답 ⑤**

[오답피하기]

ㄴ. 지눌에 따르면 참된 마음의 본체는 선정이고, 참된 마음의 작용은 지혜이다.

#### 13. 루소와 마르크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루소이고, 을은 마르크스이다. 루소는 일반 의지를 중시하는 사회계약론을 제시하였고, 마르크스는 공유제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주의 사상을 제시하였다. 두 사상가는 모두 사유 재산제를 경제적 불평등의 원인으로 보았다. **정답 ⑤**

[오답피하기]

- ① 루소에 따르면 일반 의지에 복종하는 것이 사적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② 루소에 따르면 주권은 양도될 수 없고 특정인에 의해 대표될 수도 없다.
- ③ 마르크스는 경쟁을 통한 자본의 축적에 따라 계급 갈등이 심화된다고 보았다.
- ④ 마르크스에 따르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은 자본에 예속될 수밖에 없다.

#### 14. 데카르트와 스피노자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데카르트이고, 을은 스피노자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신 또는 자연의 필연적 질서에 대한 이성적 통찰을 통해서 행복을 누릴 수 있다(ㄴ).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에 따르면 인간은 이성을 통해 진리를 인식할 수 있다(ㄷ). **정답 ④**

[오답피하기]

ㄱ. 데카르트는 방법적 회의를 통해 사유하고 있는 나의 존재는 의심할 수 없이 확실하다는 것을 확인했다.

ㄴ. 스피노자는 유일하고 절대적인 실체인 신이 곧 자연이라고 보았다.

#### 15. 벤담과 칸트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벤담이고,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하였다. 칸트는 보편화 가능한 준칙, 즉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할 것을 강조하였다. 벤담과 칸트는 모두 행위의 도덕성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원리가 있다고 보았다(ㄷ). 그러나 칸트는 벤담과 달리 도덕 법칙은 누구나 무조건 따라야 하는 정언 명령의 형식으로 제시된다고 주장하였다(ㄹ). **정답 ③**

#### [오답피하기]

ㄱ. 벤담은 양적 공리주의자이다. 그에 따르면 쾌락은 한 종류뿐이며 쾌락들 간에는 양적인 차이만 있다.

ㄴ. 칸트는 도덕적인 삶과 행복한 삶이 양립 가능하지만 구분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에 따르면 도덕 원리의 준수와 행복 사이에 필연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도덕적인 삶이 행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16. 에피쿠로스와 아우렐리우스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에피쿠로스이고, 을은 아우렐리우스이다. 아우렐리우스에 따르면 불행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인간의 정념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마음의 평화를 얻으려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답 ③**

#### [오답피하기]

①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우리는 아타락시아, 즉 몸에 고통이 없고 마음에 불안이 없는 평온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

② 에피쿠로스에 따르면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한 죽음은 우리와 함께 있지 않으며, 죽음이 오면 이미 우리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④, ⑤ 아우렐리우스는 자신의 운명과 자연의 질서에 순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 17. 롤스와 노직의 정의론 이해

**정답 해설** : (가)의 갑은 롤스이고, 을은 노직이다. 롤스는 자연적 재능의 분포를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하는데 비해 노직은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개인의 것으로 본다. 롤스에 따르면 차등의 원칙은 자연적 우연성의 영향을 완화한다(ㄴ). 노직에 따르면 분배의 결과보다 소유 과정의 정당성을 중시해야 한다(ㄹ). **정답 ②**

#### [오답피하기]

ㄱ. 롤스와 노직 모두 긍정의 대답을 할 질문이다. 그러므로 A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이 아니다.

ㄷ. 노직에 따르면 시정의 원칙에 따른 국가 개입은 개인의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

#### 18.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키르케고르이고, 을은 하이데거이다. 키르케고르는 불안과 절망을 극복하고 참된 실존을 회복하기 위해서 '신 앞에 선 단독자'로서 생각하고 행동할 것을 강조하였다. 참된 실존을 회복하면 우리는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정답 ①**

##### [오답피하기]

- ② 키르케고르에 따르면 심미적 실존 단계에서 우리는 감각적 쾌락을 추구한다.
- ③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인 우리는 불안과 염려 속에서 살아간다.
- ④ 하이데거에 따르면 현존재는 불안을 통해 실존적 삶의 가능성을 깨닫는다.
- ⑤ 키르케고르와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은 독자적 결단을 통해 참된 실존을 깨달을 수 있다.

#### 19. 박종빈과 최제우 사상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갑은 원불교의 창시자인 박종빈이고, 을은 동학의 창시자인 최제우이다. 최제우는 고유 사상을 기반으로 유·불·도 사상을 종합하여 동학을 창시하였다. 그리고 유교의 신분 질서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정답 ④**

##### [오답피하기]

- ① 박종빈은 기존의 불교 사상을 개혁하여 한국형 생활 불교를 표방하였다. 그는 특히 생활 속에서의 보은·평등·불공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 ② 박종빈은 정신과 육체를 균형 있게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영육쌍전(靈肉雙全)을 강조하였다.
- ③ 최제우는 인간이 모두 한울님을 모시고 있다는 인간 존중 사상을 제시하였다.
- ⑤ 박종빈과 최제우는 모두 후천개벽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20. 민주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비교 이해

**정답 해설** : (가)는 점진적 개혁을 통한 사회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민주 사회주의의 입장이 담겨 있는 프랑크푸르트 선언의 일부 내용이고, (나)는 시장의 원리를 강조하는 신자유주의 사상가인 하이에크의 기본 입장이 드러나 있는 글이다. 민주 사회주의와 신자유주의는 모두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인정한다. **정답 ⑤**

##### [오답피하기]

- ① 민주 사회주의는 공유제를 바탕으로 하되 농업, 수공업, 중소 공업 등의 중요 부문에서 사적 소유를 인정한다.
- ② 민주 사회주의는 능력이 아닌 필요에 따른 분배를 기본으로 한다.
- ③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시장 개입을 반대하고 복지 정책의 축소를 주장한다.
- ④ 신자유주의는 민간의 자율적 능력을 신뢰하고 규제 완화 정책을 추구한다.